

그래픽의 끝판왕, SBS 선거방송 2018 국민의 선택



그림 1. 2017 국민의 선택 (권좌의 게임)

선거방송 역사상 가장 멋있게 표현된 캐릭터를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힌 2017년 판 “왕좌의 게임”은 끝이 났다.[그림 1] 그리고, 그 게임 이후 대한민국은 “권좌에 오른 그”와 함께 1년 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로,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엄청난 이벤트의 홍수 속에서 이미 판세가 결정된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사라져갔고, 방송인들에게는 볼 필요도 없는 선거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SBS에는 소위 “전가의 보도”가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기획과 디자인도 아무렇지 않게 구현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그림 2]

“결과를 말해줄래?”

“아니, 보여줄게!”

2018 지방선거 방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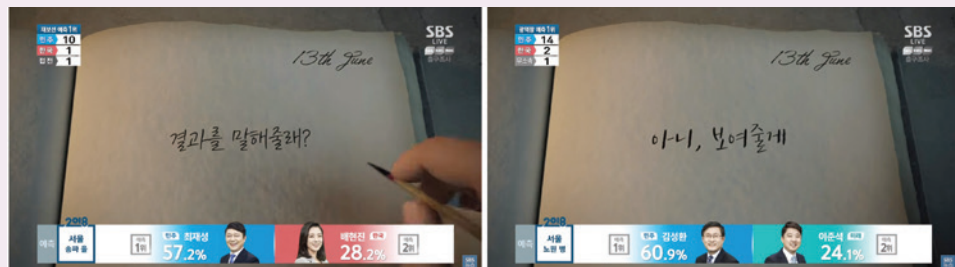


그림 2. 2018 SBS VIPON INTRO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었듯 선거 전에 이미 판세가 결정이 난 상황이었다. 게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속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슈가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로 잡히면서 관련 변수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월드컵과 나누어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리소스가 부족한 SBS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조건들이었다. 그래서 욕심을 최소한으로 줄여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었고, SBS가 자랑하는 VIPON에 전력을 쏟기로 하였다. SBS는 고유의 선거용 그래픽 송출시스템인 VIPON(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도입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VIPON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실시간 선거 관련 정보(ex. 지역 투표율, 예측 조사 결과, 후보별 득표율 등)를 그래픽 화면에 표출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SBS는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40여 개의 테마에 122개의 노말 아이폰 메뉴를 선보였다.

2018 지방선거 방송의 특징

2018 선거의 주인공 “지역”을 찾아가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아이폰을 제작했다. SBS의 대표 지역방문 아이폰 메뉴인 “투표로가 간다” 외에도 전국 각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아이폰이 선보여졌다.(“포토카드”, “꽃씨 내리면”, “큐브”, “지금 찍으러 갑니다”, “빛을 따라서” 등)



그림 3. 투표로가 간다



그림 4. 큐브와 꽃씨내리면

다양한 방식의 인물 표출

지방 선거는 재보궐 선거를 빼고도 7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일종의 “일”이었다. 그만큼 많은 인물이 선출되다 보니 후보자수도 거의 만 명에 육박하였다. [표 1. 참조]

선거명	선거구수	정수	후보자수			경쟁률
			계	등록	사퇴/사망/등록무효	
합계	2,292	4,028	9,363	9,312	51	2.3:1
광역단체장	17	17	71	71	-	4.2:1
기초단체장	226	226	757	749	8	3.3:1
광역의원	737	737	1,889	1,886	3	2.6:1
기초의원	1,035	2,541	5,336	5,318	18	2.1:1
광역의원 비례대표	17	87	300	295	5	3.4:1
기초의원 비례대표	226	386	897	882	15	2.3:1
교육감	17	17	61	59	2	3.5:1
교육위원	5	5	6	6	-	1.2:1
국회의원 재보궐	12	12	46	46	-	3.8:1

표 1.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물론 만 명에 달하는 모든 후보를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되도록 많은 지역 일꾼 후보들을 소개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폰을 제작하였고(이미지도 9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다), 특히 광역장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후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한 바이폰을 선보였다.



그림 5. 다양한 인물 표출 방식(왼쪽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키스앤크라이(광역장)”, “열려라 교육감(교육감)”, “포토카드(기초단체장)”, “푸드트럭(국회의원 재보궐)”)

Viral Monster : SBS표 킬러 바이폰



그림 6. 2017 국민의 선택(“내일은 챔피언”)

SBS는 선거 때마다 투표로, 달리기 등 비슷한 테마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킬러 바이폰을 선보여왔다.[그림 6. 참조] 이번에도 “절대반지(2016 총선)”, “권좌의 게임(2017 대선)”을 잇는 “선택의 방”을, “마라톤(2016 총선)”, “내일은 챔피언(2017 대선)”을 잇는 “서울시대”를 선보였다.



그림 7. 선택의 방



그림 8. 서울시대

특히 B급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고고경기/고고경남”과 “프로듀스 101”을 패러디한 “센터선발전”을 개발하여 SNS상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다. 특히 센터선발전은 페이스북을 통해 270만 명가량이 시청하는 등 기록적인 바이럴을 발생시켰다.



그림 9. 고고 경기/경남



그림 10. 센터선발전



그림 11. 꿈꾸는 교실

또한, 선거방송의 재미뿐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는 바이폰을 제작하여 유권자들과 잠정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11 참조]

국산 장비를 활용한 미디어월 및 DLP 메뉴 송출

노말과 하단 화면은 선거방송 그래픽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이를 송출하는 “기본 송출 장비”의 그래픽 송출 기능 및 성능은 전체 선거방송의 수준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SBS는 지난 대선에서 과감하게 미디어월 메뉴 송출에 국산 장비를 활용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어월 및 8뉴스 DLP 메뉴에 국산 장비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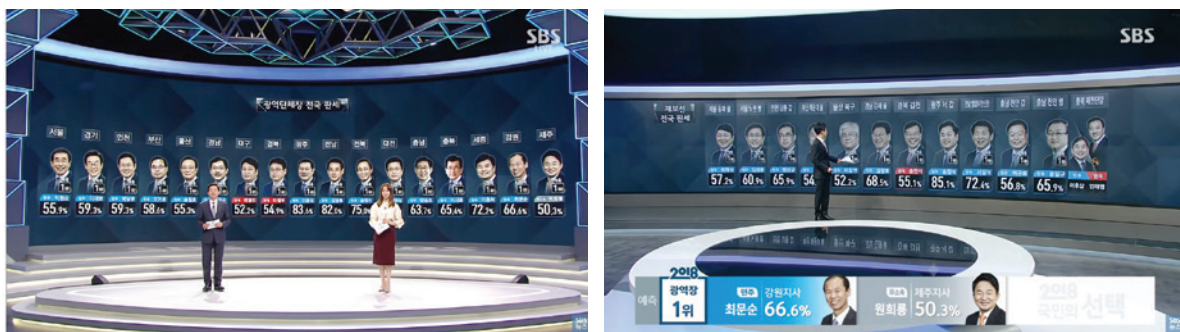


그림 12. 미디어월 및 DLP 메뉴



그림 13. 비디오머그 바이폰 운영 화면(하단)



그림 14. 중계 믹스 바이폰(경남)

보고 싶은 동네를 보여드립니다. (비디오머그 바이폰 운영)

SBS는 2016년 총선에서 국내 최초로 라이브웹방송을 선보인 후, 지난 대선 때는 최초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바이폰을 운영하였다. 이번에도 “보고 싶은 동네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주제로 SBS의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인 비디오머그에서 바이폰을 운영하였다. [그림 13 참조]

주목할 만한 시도

① 중계 믹스 바이폰 개발 및 운영 : 그래픽 개발에 관한 한 국내, 아니 전 세계 어느 방송사 부럽지 않은 최강의 개발진을 보유한 SBS지만 선거 때마다 경쟁사를 부러운 눈으로 보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출구조사 발표 시 경쟁 후보 간 상반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중계 바이폰이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후보들의 라이브를 받을 수 있는 회선 수의 한계 등에 의해 좌절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해보 기라도 하자는 각오로 도전했고 성공적으로 운행되었다. [그림 14 참조]

② 다양한 형태의 1위 후보 표출 효과 적용 :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함 없이 개표 결과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순위 표출 방식에 변화를 주어서 1위 후보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그림 15 참조]



그림 15. 당선을 향해 쏜다

③ 접전 메뉴(실시간 득표수를 적용한 바이폰) :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는 지역의 개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 접전 메뉴를 제작하였다. [그림 16 참조]



그림 16. 우주 접전



그림 17. 가상 AR

④ 가상 AR(Augmented Reality) : AR도 일종의 가상 그래픽인데 가상 AR이 된지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건 SBS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NBC나 알자지라 같은 외국 방송사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다. 바로 트럼프타워나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가상 그래픽을 원 없이 표출하고 있는 외국 방송사의 개표 방송 말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랜드마크는 많지만 가상그래픽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방송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실사로 찍은 영상에 마치 가상 그래픽처럼 카메라 트랙킹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가짜 AR 바이폰을 제작하였다.

이스터 에그(Easter Egg)

SBS는 선거 때마다 바이폰 화면 속에 개표 내용과는 상관없는 재미와 해학 요소를 숨겨놓아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선거에도 곳곳에 숨겨놓았으니 찾아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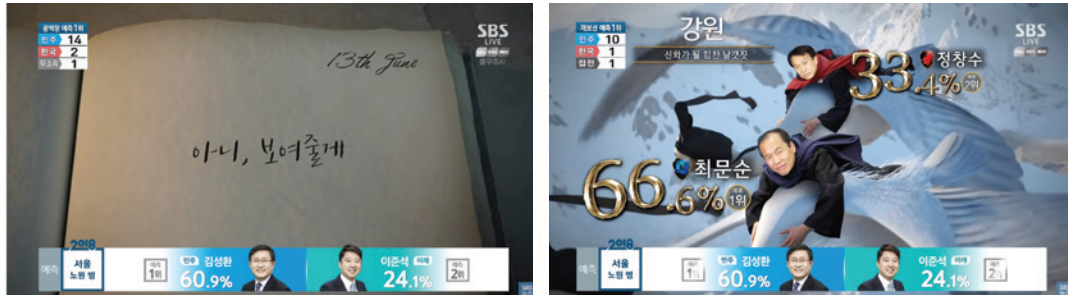


그림 18. 선택의 방



그림 19. 빨간 맛



그림 20. 서울시대

후기

① 중계 믹스 아이폰 운영 : 중계와 관련해서는 늘 염려되는 부분이 예기치 않게 라인이 끊어지는 현상이다. 첫 시도니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안정적인 라인을 아이폰에 배치하였고, 그래도 라인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 3분 전에 라인이 끊어진 지역은 후보 사진으로 덮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방송 중에 라인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송출되는 도중에도 특정 지역을 사진으로 덮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대비하였다.

② 후보 사진 촬영 : 최근 선거방송 트렌드상 아이폰 제작 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후보 사진 촬영이다. 일반적인 사진 외에도 승리 시, 혹은 패배 시의 다양한 포즈를 촬영해야 하므로 후보자들의 협조를 원활하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역장 후보뿐 아니라 재보궐 선거까지 같이 촬영해야 해서 제한된 기간 내에 모든 후보를 촬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모 광역장 후보가 끝까지 SBS 촬영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기본 사진으로 모든 아이폰을 제작해야 하였다. 방송을 자세히 보면 모든 아이폰 메뉴에서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는 후보 1명을 찾을 수 있다.(특정 화면에서는 묘하게 어울린다.)

③ AR 아이폰 : SBS가 선거 때마다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AR에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 초기에 의욕적으로 업체 섭외도 하고 소요 예산도 최소화하는 등 나름 치밀한 준비를 하였으나, 예산 동결 및 남북/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속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상 AR”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④ 북미 정상회담과 선거방송 : 의욕적으로 아이폰 제작을 준비하던 중에 들려온 북미회담 일자 소식이 선거방송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회담 규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이폰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회담이 큰 소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시간을 회담 화면이나 소식으로는 커버할 수 없으며, 결국은 아이폰을 중간중간에 방송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선거방송”에 대한 3사 경쟁이 “아이폰”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회담쪽에서만 준비만 잘 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북미회담팀에서 추가로 그래픽 개발 요청이 들어와서 이에 대한 추가 업무가 발생한 바 있다.

⑤ SNS 반응 : “역시 올해도 SBS 선거방송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SBS가 가장 보기 좋고 이해가 쉽네”, “매번 약 빨고 CG를 갈아 넣는 혼신의 방송”, “개콘보다 재밌는 SBS 선거방송”, “역시 선거방송은 SBS”, “웃기기도 하지만 때마다 퀄리티에 놀라게 된다”, “식약청은 뭐하냐! 어서 빨리 SBS 선거방송 도핑 테스트해라”

결언



그림 21. 선거방송 아이폰 개발실 일동

방송사 개발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선거방송은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는 달리 개발자가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업무가 아닐까 한다. 물론 최고 품질의 방송을 안정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선거”라는 이벤트의 특성상 항상 안정적 개발 완료와 품질 향상 작업이 부딪치는 지점이 생기곤 한다. 그래서 평소에 같이 일하지 않던 여러 부문의 인원들 간 원활한 소통이 선거방송 성패의 관건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단 하루”의 보람을 위해 극한의 시간들을 견뎌준 SBS 미디어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차마 표현 못한 미안한 마음을 “고맙다”라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바이다. 🙏